

- 주요 뉴스: 7월 FOMC 의사록, 추가 금리인상 의지 재확인 속도 조절 가능성도 제시
 - 미국 7월 소매매출, 전월비 보합. 휘발유 가격 하락 및 자동차 판매 감소 등에 기인
 - 유로존 2/4분기 성장률(수정치), 속보치 소폭 하회. 하반기 경기둔화 가속화 예상
 - 영국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982년 이후 최고치. 9월 0.5%p 금리인상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의지 및 기업실적 부진 등이 영향
주가 하락[-0.7%],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소매업체 Target의 실적 관련 부정적 평가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역대 성장률 둔화 우려 등으로 0.9%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예상 등이 반영
유로화가는 0.1% 상승, 엔화는 0.6%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저조한 국채입찰, 유로존 채권금리 상승 등이 원인
독일은 영란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11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14.7원, +4.4원) 0.4% 상승, 한국 CDS 상승

		8/17일	8/16일	전일대비			8/17일	8/1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274.0	4,305.2	-0.72%	국채 금리 10y	미국	2.90%	2.80%	9bp
	유럽	439.03	443.07	-0.91%		독일	1.08%	0.97%	11bp
	중국	3,292.5	3,277.9	0.45%	CDS 5y	한국	36bp	35bp	1bp
	일본	29,223	28,869	1.23%		중국	72bp	71bp	1bp
	한국	2,516.5	2,533.5	-0.67%	위험 지표	EMBI+	-	420	-
환율	달러지수	106.66	106.50	0.15%		VIX	19.90	19.69	1.07%
	유로화	1.0180	1.0171	0.09%		WTI유	88.11	86.53	1.83%
	엔화	135.05	134.22	-0.61%	원자재	구리	358.4	362.5	-1.13%
	위안화	6.7811	6.7882	0.10%		금	1,761.8	1,775.7	-0.78%
	원화	1,310.3	1,308.1	-0.1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7월 FOMC 의사록, 추가 금리인상 의지 재확인. 속도 조절 가능성도 제시

- 다수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근거가 거의 없으며, 이에 인플레이션 통제가 가능한 수준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 이를 위해 경제성장의 둔화도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 경제의 경우 주택시장 등 일부 부문은 신용긴축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 반면 노동시장은 견조한 상태이며, 실업률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진단.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일부 개선될 수는 있으나, 대출금리 상승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고 지적
- 위원들은 통화긴축을 지속하지만, 일정 시기가 되면 통화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 다만 통화정책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금리경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향후 경제지표와 경제가 금리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할 방침. 일부 위원들은 연준이 과도한 수준의 통화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
- 한편 이번 의사록 공개 이후 선물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0.5%p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 발신. CME의 FedWatch Tool에서도 9월 0.5%p 금리인상 확률이 전일에 비해 상승(59.0%→63.5%)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7월 소매매출, 전월비 보합. 휘발유 가격 하락 및 자동차 판매 감소 등에 기인

- 해당 매출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 6월(0.8%) 대비 증가세 둔화 및 예상치(0.1%) 하회. 이는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액 감소와 자동차 매출 둔화 등이 영향. 하지만 그 이외의 제품(가구, 가전, 건축자재 등) 관련 소비는 양호한 임금상승과 높은 수준의 가계저축 등으로 견고하여 소비부진 우려가 증폭되지는 않는 모습
- Oxford Economics의 Kathy Bostjancic는 소비자들이 제품가격 상승으로 일부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현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 한편 이번 결과는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긴축 기조를 뒷받침

■ 연준 보유만 이사, 미국 노동 수요는 강하지만 공급은 불투명

- 노동시장에서 수요 우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된다고 언급. 특히 최근 학교 및 보육기관의 정상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첨언

■ 유로존 2/4분기 성장률(수정치), 속보치 소폭 하회. 하반기 경기둔화 가속화 예상

- 해당 기간 성장률은 전기비 0.6%를 나타내 1/4분기(0.5%) 대비 상승했으나, 속보치(0.7%)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는 3.9%를 기록
- Oxford Economics의 Ricardo Amaro는 유로존의 상반기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 하지만 금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감소의 영향이 증폭되면서 0%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

■ 영국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982년 이후 최고치. 9월 0.5%p 금리인상 전망

- 해당 소비자물가(CPI)는 전년동월비 10.1% 올라 전월(9.4%)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동시에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 Citi의 Benjamin Nabarro는 내년 초 CPI 상승률이 15%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에 영란은행의 통화긴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평가. 선물시장에서는 현재 1.75%인 정책금리가 9월에 0.5%p 인상되고, 내년 3월에 3.75%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

■ OPEC 사무총장, 금년 원유시장은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에 직면할 우려

- 알가이스 신임 사무총장은 원유시장에서 추가 공급확대 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 또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유가가 하락했는데, 관련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

■ 뉴질랜드 중앙은행, 0.5%p 정책금리 인상. 고강도 통화긴축 의지 피력

- 이번 결정을 통해 정책금리를 '15년 9월 이후 최고치인 3.0%로 결정.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 제시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1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기업재고(전월비): 1.4%, 5월(1.6%), 예상치(1.4%)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채권시장, 채무불이행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 - Financial Times

(Are markets ignoring defaults?)

- 최근 일부 경기침체 우려 완화 등으로 투자자의 채권 매입이 증가.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 대비 높으며, 양호한 임금상승세 등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 또한 S&P500 기업 가운데 절반은 실질적으로 매출증가율이 마이너스
- 아울러 경제성장 둔화 속 금리인상은 자금조달 비용 증가 및 기업이익 감소를 초래. 이에 일각에서는 금년 말 기업들이 재융자에 어려움을 겪으며 투자자의 채권 매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 특히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채권시장의 채무불이행 또한 증가할 우려

■ 중국의 주택시장 위기, 정부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지속 - WSJ

(China's Housing Crisis Keeps Brewing in Beijing's Weak Tea)

- 중국 정부는 최근 증폭되고 있는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우량 건설사의 신규 회사채에 보증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 하지만 주택 관련 기업의 채권과 주식 가격의 하락세 지속. 이는 투자자들이 당국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회복 가능 여부 및 거시경제 상황에 의해 좌우. 특히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대규모 가계 부양책 부재 등이 저해 요인. 잠재적 주택 매입자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로 매입을 미룬다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 미국 주가, 최근 단기 반등이 정점에 이르렀을 소지 - 블룸버그

(This Is the Peak of US Stocks' Bear-Market Bounce)

■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입 감소, 글로벌 물가안정에 긍정적 - Financial Times

(Beijing is tanking the domestic economy — and helping the world)

■ 중국의 대만 무역제재, 첨단기술 관련 대만 의존도가 높아 제한적일 전망 - 블룸버그

(China Reliance on Taiwan Would Make Trade Retaliation Costl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